

보 도 해 명 자 료 (’19. 8. 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8.9일 전력예비율은 40%가 아닌 13.9%였으며, 이를 전력수요
예측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음 (중앙일보 8.1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◇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력수요 예측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
- ◇ 8월 9일 전력예비율은 40%가 아니라 공급예비율인 13.9%로 보아야 하며, 또한 공급예비력은 대기 중인 발전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전기낭비로 직접 연결 짓기는 적절치 않음
- ◇ 지난해 여름 예비력 하락은 탈원전이 아닌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 때문이었음
- ◇ 정부는 남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내내 국민들께서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음
- ◇ 8월 12일 중앙일보 <올 전력 예비율 최대 40%... 수요예측 실패 전기 낭비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전력예비율 최대 40%,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 실패로 전기 낭비
 -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5.9GW로, 올 여름 최대수요 예측치인 89.5~91.3GW에 훨씬 못 미침
- 지난해에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수급이 빠듯해졌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(1) 현 전력수급상황 감안시 전력수요 예측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

- *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: 89.5GW 내외(91.3GW는 혹서 가정 전망치)
- 전력수급 대책기간(7.8~9.20)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, 금주의 경우 **지난주에 비해 전력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**
 - * 8.12(월) 17시기준, 전력수요 8,694만kW(공급예비력 1,017만kW, 예비율11.7%) 기록 (8.9(금) 8,540만kW 기록)

(2) 8월 9일 피크시간대 예비율은 40%가 아니라 13.9%임

- 기사에서 언급한 **예비율 40%는 전력설비 용량 기준**이므로 이를 **전력수급 관리상 예비율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**
 - * 하계 수급관리는 ‘설비용량’에서 정비·고장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활용 불가능한 설비 등을 제외한 ‘공급능력’을 사용

(3) 전력 예비력을 “남아도는 전기”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
- 공급예비력은 남아도는 전기가 아니라 **필요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용량 규모**를 의미함
 - * 하계수급 대책기간 중에는 전력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공급예비력을 최소 10GW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

(4) 지난해 여름 예비력이 다소 하락한 것은 탈원전과는 무관함

- 예비력 하락의 원인은 **111년만의 폭염*** 때문이었으며, 지난해 원전 가동 대수는 **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**하였음
 - * ’18년 여름 : 폭염일수 31.4일(평년 9.8일), 열대야일수 17.7일(평년 5.1일)

(5) 정부는 남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내내 국민들께서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음

※ 문의: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/이선덕 주무관(044-203-5159)
원전산업정책과 최광준 팀장/김진상 사무관(044-203-5296)